

제20대 김준영 회장 취임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0대 회장으로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이 취임했다. 대교협은 4월 8일(화) 15:00~17:00 대교협 대회의실(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김준영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 교육부 한석수 대학지원실장, 박춘란 대학정책관, 한국장학재단 광병선 이사장,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기우 회장,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등 유관단체 기관장과 40여 명의 대교협 회원대학총장 등이 참석하고, 서거석 전임회장의 이임식도 함께 진행했다.



김 회장은 “변화와 혁신의 21세기를 맞아 대학 생태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대교협은 우리 대학들이 처한 엄중한 현실과 풀어가야 할 현안에 대해 서로 소통, 협력하여 대학의 입장을 한 목소리로 담아내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오늘의 대학은 과거에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면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기대 수위도 실용적 연구와 고품질 교육서비스는 물론 미래사회가 직면할 갈등 해결 능력까지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대교협은 여러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 대학들은 사회의 비판적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대학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 창출과 연구를 수행하는 지식공동체로서 미래사회의 가치 생산, 지역사회와 글로벌사회에 기여하는 개방형 지식공동체로서 대학 특성화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비전과 철학 제시, 지역·계층·세대간 갈등과 국제적 분쟁에 대한 객관적 소프트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제시, 기술정보화 심화시대에 참된 정신통화의 산실로서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대입상담센터 대입상담교사단 발대식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3월 22일(토)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2014년 대입상담교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된 대입상담교사단 및 시도교육청 대입담당장학사, 교육부와 대교협 관계자 등 270여 명이 참여하였다.

2014년 제1회 CEO초청특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월 19일(수) 영남대 상경관에서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와 공동으로 대학생을 위한 CEO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조재홍 KDB생명 사장은 ‘희망: 에너지의 원천’을 주제로 강연했다.



조 사장은 신입사원들에게 반드시 들려준다는 성공한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들려줬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모임에서든 앞자리에 앉는다. 제일 먼저 오면 전략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뒤이어 입장하는 사람(경쟁자)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걸음걸이도 빠르다. 일을 미루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집중한다. 관찰력을 갖고 남의 말을 경청한다. 마지막으로 늘 웃는다. 미소로 화답하니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천의 힘을 강조하며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성공방정식을 끝으로 강연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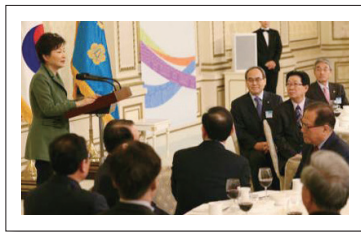
2014년 정기총회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월 5일(수) 서울 양재동 데기이서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오전 총회에는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65개교 총장이 참석하여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국립대, 사립대 총장협의회 분과회의를 열어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총장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대학총장 청와대 초청 간담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원교 중 161개 대학총장들은 2월 19일(수) 저녁 청와대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대입전형이 공교육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총장들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대입전형이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과열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오래 지켜질 수 있는 전형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도 공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사업을 통해 이러한 대학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각 대학은 학생들이 단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특성화과 독창적으로 전공 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실력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교육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국의 발전이 창의인재 육성에 달려 있는데 총장들께서 우리 대학들이 창의인재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폭넓은 사고력과 도전정신을 키워주는 교육체계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청년취업 및 창업에 대해 “대학이 산업체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그러한 교육단계부터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일자리 mismatching과 실업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창업 휴학제 등 창업 부담없이 창업이 가능하도록 총장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울리 최근 발표된 대학구조 개혁안과 관련, “정부가 획일적 잣대로 개혁을 주도하기보다는 대학이 변화된 수요에 맞춰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고, 지방대학 지원에 대해서는 “대학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토대로 무엇을 하고 싶든지 다른 대학과 차별화해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든지 하는 것을 발굴하고 노력한다면 정부는 적극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거석 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최근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엊그제 한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며 “그간 대학들은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 학생 자율에 맡겨 왔으나, 앞으로는 학생 안전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대학구조 개혁에 대해 “대학 구조개혁은 단순히 학생 정원을 감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정부도 대학이 설립목적과 특성을 살려 개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학에 대한 투자 없이 대학 발전은 없고, 대학 경쟁력 없이 국가 경쟁력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서 회장은 “대통령께서도 고등교육 예산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끝으로 “구조개혁을 앞둔 현 상황에서는 대학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라며 “우리 대학들은 어려운 여건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학생들을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청와대사진기자단>